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ly 2025 Issue | Vol. 51

SPECIAL POINTS OF INTEREST

- 미국의 관세, 필리핀 GDP 성장을 하락시킬 수도
— page 1-2
- 필리핀-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2026년 최종 타결 전망
— page 3
- 필리핀 제조업계, 12대 정책 우선순위 및 무역 개혁안 공개 — page 4
- 마르코스 대통령, 국제 기업들에 “필리핀 국민과 농업에 투자하라” 촉구 — page 5
- 마르코스 대통령, 제4차 국정연설에서 커져가는 국민 불만에 직면
— page 5-6
- 아세안 통화, 상승세 예상 — page 7-8
- 국정연설에서 수출업체 언급 없어 단체들 실망 — page 9-10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 page 11

미국의 관세, 필리핀 GDP 성장을 하락시킬 수도

July 28, 2025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노무라 글로벌 마켓 리서치(Nomura Global Markets Research)는 미국이 필리핀산 제품에 부과한 19%의 관세가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ppt)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필리핀산 제품에 부과한 19%의 관세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에 하방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만으로도 필리핀의 기준선 GDP 성장률 전망치를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0.4%포인트 하락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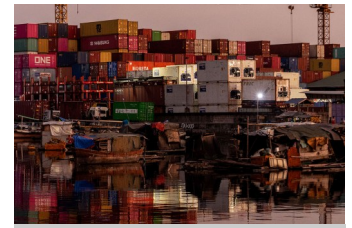
노무라는 이러한 전망이 자사의 기준선 성장률 전망치인 올해 5.3%, 2026년 5.6%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노무라는 “이는 필리핀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며 제3국을 통한 환적(transshipment) 국가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상호 관세율이 1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르코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과 양국이 강력한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은 여전히 19%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해방의 날’ 수준인 17%보다도 더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미국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산 제품에 대해 19%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 container terminal is seen from Navotas, Metro Manila in this photo taken April 11, 2025. — REUTERS/ELOISA LOPEZ

노무라는 “따라서 이번 무역 ‘합의’는 특히 필리핀에 있어 관세율 측면에서 예상 밖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라는 “그 결과,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시행되고 해당 관세율이 지속된다면, 양국 모두에서 현재 우리의 기준선 전망치보다 성장률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56.5%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목표치인 68%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무라는 “이러한 대략적인 추정치는 타당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며 이는 단지 미국으로 수출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정치는 반도체나 의약품 등 현재는 면제된 분야별 관세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리서치팀이 지적했듯이, 일부 국가는 면제되더라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의 무역 합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제한적이다.”

또한 “한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다른 주요 교역국들은 여전히 협상 중이며,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 지역에 추가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Cont. page 2]

미국의 관세, 필리핀 GDP 성장을 하락시킬 수도

[Cont. from page 1]

필리핀 산업부(DTI)는 현지 산업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 협정 최종 세부사항에 대해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또한 필리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메트로폴리탄 은행(Metrobank) 리서치가 별도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대형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필리핀은 그 여파를 겪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2027년 이후에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트로뱅크는 이러한 변화가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통화정책과 해외 필리핀 노동자(OFW) 송금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SP의 기준금리(역레포 금리)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더불어 미국의 민간 투자 위축으로 GDP 성장이 둔화되면, 수출 수요와 OFW 송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고 새로운 세금 감면도 도입하고 있다.

메트로뱅크는 “미국이 지출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려 할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금리가 오를 수 있다” 며,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외국 자본이 필리핀 같은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게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BSP가 금리를 인상하여 필리핀이 투자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 남도록 할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작년 8월 완화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 기준금리를 총 125bp(1.25%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6월에도 두 번째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25bp 낮춰 5.25%로 조정했다.

메트로뱅크는 금리 상승이 소비와 기업 투자 모두를 억제해 필리핀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성장 둔화는 필리핀의 수출 부문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필리핀 수출품의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경우, 필리핀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수출 감소와 더불어 고율의 관세가 결합되면 무역적자가 더욱 악화되고 전반적인 GDP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고 밝혔다.

메트로뱅크는 또한 미국의 성장 둔화가 필리핀과 같은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2026년부터 해외 송금에 대해 1%의 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OFW(해외 필리핀 노동자) 송금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는 약 200만 명의 OFW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송금을 통해 필리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송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메트로뱅크는 설명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송금액의 약 40.2%가 미국에서 들어오며, 올해 첫 5개월 동안 미국은 송금액 비중 1위를 차지했다.

“OFW들이 임금 삭감을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는다면, 송금 규모는 제한될 것이다. 송금은 가계 소비를 자극하며 이는 필리핀 GDP의 78.2%를 차지한다.”

BSP는 앞서 이 송금세가 송금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추정했다. 중앙은행은 올해 송금이 2.8%, 2026년에는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트로뱅크는 “송금 감소는 가계 지출을 위축시키고, 이는 경제 성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고 덧붙였다.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7/28/687831/us-tariff-may-trim-phl-gdp-growth/>

필리핀-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2026년 최종 타결 전망

July 28, 2025 | Dexter Barro II | Manila Bulletin



필리핀은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내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로케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장관은 지금까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와의 FTA가 2026년까지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로케 장관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이것은 유럽에 우리 제품을 판매할 또 하나의 통로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DTI) 알란 켈티 차관은 지난주, 마닐라와 EU 간의 최근 협상이 “상호 수용 가능한 조항을 찾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고 밝혔다.

켈티 차관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19개 주요 무역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에너지 및 원자재, 무역과 지속 가능한 개발 등에서 새로운 협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협상 라운드는 오는 10월 마닐라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로의 수출은 80억 7,000만 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했다.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은 필리핀이 지금까지 추진한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케 장관은 EU와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둔 이 FTA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잠재적 역풍으로부터 필리핀 수출업체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미국은 필리핀에 부과하려 했던 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9%로 조정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필리핀 정부는 자동차, 대두, 밀, 의약품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했다.

필리핀은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려 하고 있다.

로케 장관은 필리핀이 12개국으로 구성된 CPTPP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PTPP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권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전 세계 GDP의 14.4%, 약 15조 달러에 해당한다.

CPTPP 회원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이다.

한편, 로케 장관은 필리핀이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양국이 CEPA에 서명하면 그 혜택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무역 차관이자 필리핀 투자위원회(BOI) 대표인 세페리노 로돌포는 지난 5월, CEPA가 UAE의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필리핀에 상당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협정이 필리핀 수출업체들에게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아프리카 인근 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https://mb.com.ph/2025/07/28/ph-eu-free-trade-deal-nearing-completion-set-for-2026-finalization>

필리핀 제조업계, 12대 정책 우선순위 및 무역 개혁안 공개

July 28,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필리핀 제조업체 및 생산자들의 연합 조직인 필리핀산업연맹(FPI)은 제20차 의회에서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공정무역 관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혁 조치들의 이행을 입법자들이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FPI는 지난 주말 발표한 성명에서 6개의 산업 정책 우선과제와 6개의 무역 및 집행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FPI가 제시한 주요 산업 정책 중 하나는 **타탁 피노이 법(Tatak Pinoy Act)**의 효과적인 시행으로, 이를 위해 적절한 예산 지원과 산업 발전을 이끌고 감독할 수 있는 다부문 타탁 피노이 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핵심 개혁 과제로는 CREATE MORE 법안의 조속한 시행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및 수출 지향 제조업체 모두가 적시에 공정하게 인센티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FPI는 또한 필리핀 전역의 모든 항구 및 시장에서 필리핀 국가 표준(PNS)의 완전한 준수를 철저히 시행해 수입 및 국산 제품 모두가 국내 안전성과 품질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산업 단체는 다가오는 의회에서 제조업, 에너지, 운송, 인프라 전반에 걸쳐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가속화하는 녹색 산업 정책(green industrial policy)을 추진할 것을 입법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혁신, 경쟁력, 환경 회복력을 가능하게 하는 전환 금융 및 규제 인센티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면서, 청정 생산 시스템과 순환 경제 모델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PI(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의 산업 개혁 권고안에는 ‘국산품 우선구매법(Local Preference Procurement Law)’의 시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 단체는 이 조치가 “정부 조달에서 국산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고, 특히 인프라, 건설 자재, 필수 공공재 분야에서 필리핀 국가규격(PNS)을 준수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 및 단속 관련 개혁과 관련해서는, FPI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항만 디지털화, 세관 위험 분석 도구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 밀수 방지법(Comprehensive Anti-Smuggling Law)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내 제조업체 및 생산자들의 연합 조직인 FPI는 또한 셰이프가드 조치,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무역 구제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중 ‘잠정 조치(provisional measures)’의 활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FPI는 민감 산업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 및 자유화 사전 영향 평가(pre-liberalization impact assessments)를 포함하는 ‘균형 있고 전략적인’ 관세 정책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무역 및 단속 개혁 과제로는, 수입 급증 및 ‘불공정’ 외국 경쟁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 및 산업 방어 체계의 제도화를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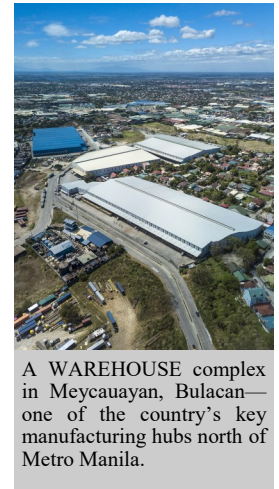
FPI는 투자자들이 겪는 “부당한 지연, 괴롭힘, 규제의 일관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독립적인 투자 옴부즈만(Independent Investment Ombudsman)**을 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구는 무역산업부(DTI), 제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RB), 투자위원회(BOI), 재무부(DOF), 그리고 지방정부(LGU)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하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FPI는 전자정부(e-Governance)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무역원활화, 인허가, 규제 절차 등의 완전한 디지털 통합을 통해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PI는 경제 전반의 주요 부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공정 경쟁, 건전한 산업 정책, 그리고 회복력 있는 제조업 기반을 통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Image credits: [MICHAEL EDWARDS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28/phl-manufacturers-bare-12-policy-priorities-trade-reforms/>



마르코스 대통령, 국제 기업들에 “필리핀 국민과 농업에 투자하라” 촉구

July 28, 2025 | Llanesca T. Panti | GMA Integrated News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월요일, 제조업 및 농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하며, 국제 기업들에게 이들 산업에 투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제4차 국정연설(SONA)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팔라라구인 나틴 앙 마가 인두스트리야—마가 파브리카 응 사사키안, 홀마한, 앳 일렉트로닉스, 바이오기술, 의약품, 중요 광물, 필리핀 섬유, 할랄, 건설, 앳 마가 플란타 응 쿠리엔테. 나그운잇 나나와간 파 린 아코 사 아팅 마가 네고사테: 마무후난 카요 사 아팅 아그리쿨투라.”

(우리는 차량, 전자제품, 바이오기술, 의약품, 중요 광물, 섬유, 할랄 식품, 건설, 발전소 등의 제조업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필리핀 농업 부문에 투자해 주십시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전하는 저의 강력하고도 단호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필리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국민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는 이어 “신뢰할 수 있고 근면한 필리핀 국민들은 타고난 기술과 유연성, 그리고 봉사 정신을 지닌 채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

2024년 11월, 마르코스 대통령은 CREATE More 법안에 서명하여, 필리핀의 투자유치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ies)이 승인할 수 있는 투자 자본 한도를 기존 10억 페소에서 150억 페소로 상향시켰습니다.

이 법은 또한, 청소, 경비, 금융 자문, 마케팅, 인사관리 등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함으로써, 필리핀을 보다 투자 친화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VAL, GMA Integrated News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54000/marcos-urges-int-l-businesses-to-invest-in-the-filipino-ph-agriculture/story/>

마르코스 대통령, 제4차 국정연설에서 커져가는 국민 불만에 직면

July 28, 2025 | Kenneth Christiane L. Basilio | BusinessWorld

대통령 임기 3년 차를 맞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내세운 많은 공약들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에 열리는 **제4차 국정연설(SONA)**을 앞두고, 공약과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현실 간의 괴리는 그의 행정부가 이룬 성과들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44세의 택시 운전자 에마누엘 V. 푼살란(Emmanuel V. Punzalan) 씨는 소외감을 느끼는 수많은 시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마닐라 수도권의 발목 높이까지 차오른 침수 도로를 지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했던 약속 중 많은 것들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 실제로 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쌀값 인하, 농업 활성화, 새로운 산업 시대의 개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푼살란 씨와 같은 많은 필리핀 국민들은 이러한 공약이 여전히 자신의 일상생활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궁 언론담당관 클라리사 A. 카스트로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정치 분석가들은 그의 유산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장기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평가합니다. 2028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정적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르코스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폭풍 이후 경제를 회복시킨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아르얀 P. 아그레(Arjan P. Aguirre)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사상 최대치인 9.5%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대규모 차입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국가 부채는 2019년 GDP 대비 39.6%에서 2024년 1분기에는 62%까지 상승했습니다. [Cont. page 6]



(PEDESTRIANS walk past a poster of President Ferdinand R. Marcos, Jr. ahead of his State of the Nation Address scheduled on July 28. —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마르코스 대통령, 제4차 국정연설에서 커져가는 국민 불만에 직면 [Cont. from page 5]



한편, 마르코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여 2023년에는 6%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월(3.7%) 대비 2024년 6월에는 1.4%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5.4% 성장하여, 작년 동기(5.9%)보다 낮고 시장 예상에도 못 미쳤습니다.

라이니엘 매트 M. 에레세(Reinielle Matt M. Erece) Oikonomia Advisory and Research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버 메시지에서 “마르코스 행정부는 이제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인프라 개발, 투자 유치, 무역 협정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는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5~6.5%로 하향 조정했으며, 미국의 관세 인상과 같은 대외 리스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 이후, 미 백악관은 필리핀산 제품에 대해 19%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행정부에 수출 시장 다변화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A. 란조나(Leonardo A. Lanza)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수출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타겟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우선 순위 산업을 식별하고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T. 바르셀론(George T. Barcelon) 필리핀 상공회의소(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회장은 물류 비용이 높다는 점이 여전히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필리핀의 물류 비용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만 운영 개선과 해상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개혁을 촉구하며,

“선박, 국제 해운, 항만 지역 운영 등 물류 전반의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은 기업 환경

로버트 M. 영(Robert M. Young) 필리핀 외국바이어협회(Foreign Buy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회장은 반관료주의청(ARTA, Anti-Red Tape Authority)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ARTA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해 보이며, 거의 보고 기능만 수행하는 기관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국 수출위원회(national export commission) 설립을 제안하며, 전략적인 수출 청사진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포괄적인 수출 계획을 수립하여, 수출 진흥, 보조금, 산업 육성 조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필리핀의 수출은 전자제품 호조에 힘입어 5월까지 누계 기준 0.8% 증가한 34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 회장은 현지 수출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nt. page 7]

마르코스 대통령, 제4차 국정연설에서 커져가는 국민 불만에 직면

[Cont. from page 6]

그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가로막는 헌법상의 제약을 철폐함으로써 필리핀 경제를 더욱 자유화할 것을 입법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16조 9,200억 페소에 달하는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 지속 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도 또 다른 주요 우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존 파올로 R. 리베라(John Paolo R. Rivera) 필리핀 개발연구원(PIDS) 선임연구원은 바이버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에 앞서, 세수 징수 효율을 높이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고청(Bureau of the Treasury)은 최근 발표에서, 2024년 6월에 2,416억 페소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리베라 박사는 “더 나은 세수 징수 체계와 수익 창출 방식이 필요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나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공정하고 성장 친화적인 조세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군인 연금의 급증하는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개혁 없이는 현재의 연금 시스템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로 인해 보건, 교육, 인프라 분야에 쓰일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리베라 박사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인 기여 방식 도입과 퇴직 연령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마르코스 행정부가 최신 종자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농민에게 직접적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식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또한, 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농민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역풍

그러나 다가오는 정치적 긴장 상황은 핵심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5월 중간선거에서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상원 12석 중 4석을 차지했고, 마르코스 대통령 측은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적으로 약한 성과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또한 2028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사라 두테르테-카르피오 부통령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아기에 씨는 두테르테 진영의 의원들이 양원 모두에서 “방해 세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상원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두테르테 측과 잠재적 연합 세력들이 방해 세력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며 “마르코스 행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을 무산시키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마카티대학교 정치학과 에더슨 D.T. 타피아 교수는 이번 대통령 국정연설(SONA)은 정치적 통합의 메시지를 담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는 “마르코스 행정부의 전반기는 개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그 효과는 아직 일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타피아 교수는 “마르코스 대통령은 거시경제 안정, 인프라 및 디지털 확장, 건강보험 확대, 보다 확고한 외교 정책이라는 기반을 다졌다” 며 “하지만 이것을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소득 증가, 식량 안보, 정치적 통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혼란을 씨와 같은 시민들은 말뿐인 수사보다 실질적인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이 약속한 것들을 모두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불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필리핀 국민들은 마르코스 대통령 임기의 후반부에는 자신들에게 약속된 변화가 실현되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with Chloe Mari A. Hufana and Adrian H. Halili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7/28/687829/marcos-faces-rising-discontent-as-he-delivers-4th-sona/>

아세안 통화, 상승세 예상

July 29, 2025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The Manila Times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외환시장 분석기관인 메이뱅크 외환 리서치 & 전략(Maybank FX Research & Strategy)은 글로벌 역풍이 약화되고 통화정책이 완화된에 따라 앞으로 몇 달간 아세안 통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금리가 하락하며 무역 외교가 진전을 보임에 따라 인도네시아 루피아, 말레이시아 링깃, 태국 바트, 필리핀 페소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Cont. page 8]

아세안 통화, 상승세 예상

[Cont. from page 7]

메이뱅크는 “투자자들은 분명히 처리해야 할 문제들의 끝없는 목록을 안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 속에서도 아세안 외환 시장에는 상승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 약세는 역사적으로 아세안 지역의 자국 통화 표시 국제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고수익 시장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통화 약세로 수익률이 줄어들었던 상황이 루피아가 안정되거나 강세로 전환될 경우 반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필리핀의 경우, 달러 약세와 전자제품 수출 회복에 힘입은 무역수지 적자 축소가 폐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뱅크는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어, 폐소의 안정을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어 대부분의 아세안 통화가 지난 3월 말 이후 G10 국가 통화에 비해 여전히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바트와 말레이시아 링GIT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필리핀 페소는 여전히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통화의 “저평가”는 투자자들이 보다 높은 신용등급과 유동성이 풍부한 국가의 통화를 선호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외환 시장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낙관적이다”며 “더 많은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글로벌 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야가 명확해지면, 아세안 등 신흥시장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투자 흐름 개선의 최대 수혜국으로 인도네시아를 꼽았으며, 그 뒤를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폐소 반등

폐소는 3분기에 미화 1달러당 55페소 수준으로 반등하고, 이후 2026년까지는 54페소까지 추가 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해 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췄다. 재정 우려로 인해 루피아에 대한 시장 심리가 위축되었지만, 메이뱅크는 이번 무역 협정이 투자 유인을 높이는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필리핀도 미국과의 19% 관세 협정을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메이뱅크는 전했다. 비록 필리핀이 주변국들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는 아니지만, 거시경제 심리 개선에 따라 폐소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가능성

메이뱅크는 또한 아세안 지역 여러 중앙은행들이 낮은 인플레이션과 둔화된 성장률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 약세 환경에서는 수익률 격차의 중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채권과 통화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는 데 더욱 중요해졌습니다,”라고 메이뱅크는 밝혔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최대 175bp(1.75%)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필리핀 중앙은행(BSP)과 태국 중앙은행도 각각 75bp의 추가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추가 완화가 예상되진 않지만, 기존 수익률 격차와 채권 시장 환경은 여전히 지지적이다.

BSP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Board)는 8월 5일 7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향후 정책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BSP의 엘리 레몰로나(Eli Remolona Jr.) 총재는 앞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개선되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가로 두 차례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현재 5.25%로 조정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7/29/business/top-business/asean-currencies-seen-gaining/2157485>

국정연설에서 수출업체 언급 없어 단체들 실망

July 29,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수출 관련 단체들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최근 미국이 부과한 19% 관세로부터 수출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에 실망을 표했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연설(SONA)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무언가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계획도 없으며, 미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의류 산업과 다른 산업을 언급한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요,” 라고 필리핀 해외바이어협회(FOBAP)의 회장 로버트 영(Robert Young)은 월요일 밤 *BusinessMirror*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은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출업체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면에서든 — 뭐랄까 — 싸우려는 의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Philippine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is seen on the electronic board as he delivers his State of the Nation Address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Quezon City, Philippines, on Monday, July 28, 2025. (AP Photo/Aaron Favila)

영 회장은 특히 미국 바이어들을 포함한 해외 구매자들이 이번 사안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연설(SONA)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필리핀과 미국 간 진행 중인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상호관세 시행일인 8월 1일까지 아직 며칠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네,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해외 바이어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곳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 대통령이 이 사안에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라고 영 회장은 말했다.

그는 부분적으로 필리핀어를 섞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에게 전달된 신호는, 그들이 이것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 부정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7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갔다가 19퍼센트로 된 거죠. 1퍼센트포인트 차이는 웃기는 일이지요.” (참고: 기사 원문)

한편, 영 회장은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의류(garments)”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에 대해 업계는 매우 기뻐했다고 전했다.

“정말 기쁘고, 언급되기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면서도, “하지만 어떻게 개선할지, 또는 당장 말할 수 있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한 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이를테면 정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든가, 대통령과 직접 협의하겠다는가 하는 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덧붙였다.

필리핀수출자연맹(Philexport) 회장 세르히오 R. 오르티즈-루이스 주니어(Sergio R. Ortiz-Luis Jr.)도 이 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수출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언급을 기대했는데 없더군요. 그 점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Ortiz-Luis 회장은 미국이 필리핀산 제품에 대해 19%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SONA(국정연설)에서 이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수출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졌어야 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세 문제도 수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Ortiz-Luis 회장은 필리핀 수출업계를 대표하는 연합체의 수장입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내 산업을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워싱턴이 부과한 상호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관세는 일부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팔라라고인 나틴 앙 마가 인두스트리아—마가 파브리카 응 사사쿰안, 홀마한, 앳 일렉트로닉스, 바이오테크놀로지야, 파르마수티칼스, 크리티컬 미네랄스, 텔랑 피노이, 할랄 진설, 앳 마가 플란타 응 쿠리엔테.”

(“자동차 공장, 금형, 전자제품, 바이오테크놀로지, 의약품, 전략광물, 필리핀산 섬유, 할랄 건축, 발전소 등 산업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 기업인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농업에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10]

국정연설에서 수출업체 언급 없어 단체들 실망

[Cont. from page 9]

FPI: “잘 전달된 연설”

다른 산업 단체의 시각에서, 필리핀 산업연맹(FPI)은 대통령의 국정연설(SONA)이 “잘 전달되었다”고 평가했다.

FPI 의장 엘리자베스 리(Elizabeth Lee)는 바이버(Viber)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이 더 다양한 시급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했을 수 있으나, 식량 안보, 홍수, 전력 공급, 공중보건, 교육 등 핵심 이슈에 초점을 맞춘 결정은 전략적이면서도 안심이 되는 접근이었다”고 말했다.

리 의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분야들이 “필리핀 국민의 일상적인 두려움과 희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함으로써 더 탄력적인 시민과 노동력을 구축하려는 대통령의 목표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FPI는 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250만 가구의 소규모 창업 지원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에 박수를 보내며, 이러한 소기업들이 국가 제조업 및 공급망에 보다 깊숙이 통합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FPI는 또한 “카디와(Kadiwa) 시장의 확대와, 폭리를 취하거나 밀수입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방침은 가격 안정을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FPI는 “정부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항목은 거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제정 건전성과 정책 일관성은 의미 있는 장기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고 산업 단체는 덧붙였다.

미국상공회의소(AmCham): “고무적”

필리핀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사무총장 에브 힌치리프(Ebb Hinchliffe)는 바이버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기업 지원 및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인프라 개발 및 디지털화 추진을 통해 시사한 점에 고무되었습니다.”

힌치리프 사무총장은 전자정부(e-governance) 법안과 인터넷 연결 개선 필요성 언급에 대해서도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하다”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AmCham은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일부 개혁안들—예를 들어 주요 산업 부문의 추가 자유화—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해당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힌치리프 사무총장은 이어 “대통령이 인프라, 특히 홍수 통제에 강조점을 두고,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29/no-mention-of-exporters-in-sona-disappoints-groups/](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29/no-mention-of-exporters-in-sona-disappoints-groups/)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info@kccp.ph | www.kccp.ph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SEPTEMBER 25-26, 2025 | MARRIOTT GRAND BALLROOM



HON. FREDERICK GO

SECRETARY
OFFICE OF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DR. ENRICO PARINGIT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HON. ERNESTO PEREZ

SECRETARY
ANTI-RED TAPE AUTHORITY



GONZALO VARELA

LEAD ECONOMIST AND PROGRAM LEADER
WORLD BANK

VISIT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LEARN MORE
AND REGISTER NOW!

SPONSORS

PLATINUM



GOLD



SILVER



BRONZE



SECTORAL



EVENT PARTNERS



MEDIA PARTNERS



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Our Areas of Expertise



PROPERTY INSURANCE 재물

Industrial All Risks 재산종합 | Fire Broad Named Perils 화재 |
Commercial All Risks 영업종합 | Machinery Breakdown 기계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 Contractors' All Risks 건설종합 |
Equipment Floater 장비



MOTOR 자동차

CTPL 책임보험 | Comprehensive 종합보험 | Fleet Policy 그룹증권



PEOPLE SOLUTIONS 직원복지

Life 생명 | HMO 의료실비 보험 | Clinic Management 의료관리 |
Key Person Insurance 경영자보험



MARINE INSURANCE 적하/물류

Single Shipment 수입/수출 일회운송 | Marine Open 수입/수출 연간보험 |
Inland / Inter-island 내륙운송/섬간 이동 운송 | Stock Throughput 물류종합



ACCIDENT & TRAVEL 상해 & 여행자

Personal Accident (Individual & Group), Travel (Individual & Group)



LIABILITY 배상책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배상 | 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 |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물류업자배상 |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 | Directors and Officers 임원배상



OTHERS 기타보험

Bonds 보증보험 | MSPR 현금도난 | Fidelity 신원보증 | Trade Credit 신용보험 |
Political and Terrorism 정치적위험 및 테러 | Cyber Insurance 사이버보험

We Answer To No One But Our Clients

Lockton Philippine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29th and 36th Floors, Rufino Pacific Tower, 6784 Ayala Avenue corner
V.A. Rufino Street, Makati City, Philippines 1200



+632 8811 0388



info.philippines@lockton.com



For Korean accounts, you may contact Hye-Won "Eunice" Park 박혜원 팀장

eunice.park@lockton.com



+63 917 854 7930

